



##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의결



▲ 제안 설명중인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3월 24일 오전11시 제207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후, 3개월간에 걸친 회의 및 현장 확인과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결과보고서의 후속 조치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1일간 개최한 것이다.

이 날, 정관훈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13차에 걸친 회의와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문화재단의 조직관리 및 인사, 예산 집행 및 회계, 주요 사업추진 등 업무처리 전반에 있어 규정위반 등 많은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집행부와 문화재단에서는 당초 재단의 설립취지를 살피 경영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확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재단의 합리적인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조사결과 보고서의 후속조치사항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등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 광진문화재단 사장 해임건의안 ▲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해임건의안 ▲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광진문화재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 광진문화재단 각종 의혹사항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제20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2016 세입·세출의 결산 등 중점 검사



▲ 결산검사 방향에 대해 발언중인 지경원 의원

광진구의회는 3월 22일 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모두 4명으로, 대표위원인 지경원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규 회계사, 송근섭 세무사, 김용민 세무사이다.

이번 결산검사(대표위원 지경원) 대상은 2016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재무제표 등이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지경원 의원은 “2016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 낭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번 결산검사가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 편성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2017년 제1차 정례회(5. 23. ~ 6. 13. 중)에 승인을 거친 후 서울시에 보고하고,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http://council.gwangjin.go.kr>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